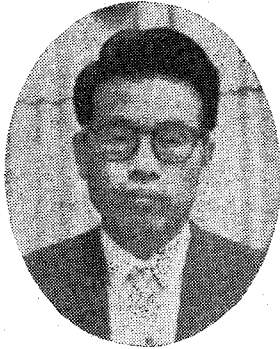


韓 國 시 멘 트 工 業 의 問 題 點

특히 그의 經營 規模問題를 中心으로



高麗大學校 商學博士

宋 基 澈

1. 問題의 提起

現代의 文明을 여러가지로 表現하지만 어떤 사람은 콘크리트 文明이라고도 한다. 現代人들이 콘크리트·장글속에 살고 있음을 볼 때 이 表現은 正當한 것이며 따라서 이의 一原料가 되는 시멘트文明이야 말로 現代文明이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10餘年前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 現代文明의 惠澤을 제대로 享有할 수 없었다. 그것에는 여러가지 理由에서이기는 하지만 우리 나라에 시멘트工業이 제대로 存立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日帝下에 시멘트工業이 있었기는 했지만 그것은 日人의 것이었고, 또 8.15解放後에는 그것조차 北韓에 偏在해 있었고 三陟에 조고만 工場이 있었던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것도 軍政以後의 여러 混亂, 6.25動亂에 의한 破壞로 우리가 우리의 시멘트로 現代文明을 享有한 것은 1957年以後 그것도 本格的인 것은 1964年以後의 現象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들로 하여금 시멘트文明을 누리게 할 수 있었던 시멘트工業 關係人士들의 피나는 努力과 끊임없는 創意力에 敬意를 表하면서 今後도 더 좋고 싼 시멘트를 더 便宜하고도 有利한 條件下에 活用할 수 있고 시멘트工業이 淸아세아에서도 물론 이에 全世界의으로 名聲을 떨쳐 永遠無窮한 繁榮을 바라는 마음 切實한 것이다.

그러나 시멘트工業도 그것이 하나의 産業이요 또 企業體로 構成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希求와 要望과는 現實로 보아서 여러가지로 距離가 있는 것이 産業社會의 冷嚴한 現實인 것이다. 어느 産業이거나 企業 그리고 더 나아가 製品도 그리고 國家나 民族에게도 「萬物은 流轉한다」는 一種의 哲學과 같이 壽命이나 變遷을 免할 道理는 全혀 없는 것이다. 따라서 産業으로서의 시멘트工業에 또 그를 構成하는 시멘트 企業에 現實的으로 問題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問題들을 經濟的 側面에서 分析 檢討하여 우리 나라 시멘트企業과 시멘트工業에 도움이 되고저 하는데 本稿의 目的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마디 添加해야 할 것은 筆者가 시멘트工業界에서나 또 시멘트企業에서 어떤 具體的 資料를 入手해서 科學的으로 分析한 것이 아니고 平素 筆者가 그저 보고 들은 範圍內에서 一般的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特定業體를 또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論調에 實情과 약간의 差違가 혹시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너그럽게 諒察해 달라는 것이다.

## 2. 시멘트業界의 問題點

몇 年前만 하더라도 시멘트는 過少供給狀態에 있었다. 따라서 業界로 보아서나 企業으로서도 어떻게 더 많이 生産해서 有利한 條件下에서 販賣하느냐의 즐거운 悲鳴이였었고 그래서 企業經營은 比較的 쉬웠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4년부터 시멘트企業의 增加와 더불어 점차로 供給이 增加되고 1967년부터 企業經營樣相이 많이 달라지기 始作했다.

1966년부터 시멘트業體는 6個社로 되고 또 그들은 각각 施設增加를 하기 始作했고 매마침 建設붐은 시멘트價格을 刺戟하게 되자 政府는 調達回轉基金으로 시멘트를 輸入하고 또 民間貿易業者로 하여금 시멘트를 輸入시키고 또 國內 시멘트價格의 相對的 價値性, 施設擴張에 따른 私債增加, 마아진幅의 減少와 販賣不振등으로 豫想했던 것과 같은 好景氣를 누릴 수 없는 徵候가 나타나기 始作했다.

今年에 들어와서 이 樣相은 더욱 더 探刻하다는 얘기이다. 先發企業인 某業體가 銀行管理로 옮겨 졌다든가 某業體가 代拂業體가 되었다든가 하는 것으로 이를 立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이와같은 現象은 1月 21日의 事態와 不動產投機抑制稅때문에 建設붐이 크게 鈍化되므로써 例年보다는 달리 피크期間이 짧고 價格이 계속 弱勢를 보이고 있는 것이 特色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弱勢現象은 시멘트工業과 시멘트企業의 몇 個의 問題點을 던져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을 筆者는 다음과 같은

- ① 規模經營의 問題
- ② 資金問題

③ 市場問題

④ 輸送問題

⑤ 其他問題(價格, 人材)로 보는데 그 중에서 規模經營의 問題를 中心으로 檢討해 보고자 한다.

## 3. 經營規模의 問題點

業種	區分	會社名	資本金 (單位千圓)
生 콘 크 리 트		아사노콘크리트株式會社	250,000
		札幌아사노콘크리트株式會社	50,000
		名古屋아사노콘크리트株式會社	150,000
		大阪아사노콘크리트株式會社	100,000
		福岡아사노콘크리트株式會社	50,000
		東京콘크리트株式會社 東急콘크리트株式會社	150,000 150,000
시멘트 및 시멘트 一次 製品		第一시멘트株式會社	600,000
		淺野시멘트株式會社	300,000
		아사노·폴株式會社	100,000
		아사노·부록工業株式會社	70,000
		旭콘크리트工業株式會社	100,000
		日本에타닛트·파이프株式會社	800,000
		에타닛트·콘크리트工業株式會社	60,000
		日本사-모콘株式會社	30,000
		日本흙管株式會社	500,000
		피·에스·콘크리트株式會社 北海道피·에스·콘크리트株式會社	420,000 170,000
原 材 料		會津鑛業株式會社	40,000
		阿南鑛業株式會社	80,000
		奧多摩工業株式會社	288,000
		秩父鑛業株式會社	20,000
		四國鑛業株式會社	100,000
		甲州碎石株式會社	60,000
運 輸 · 容 器		北九州運輸株式會社	20,000
		日本運輸株式會社	20,000
		東洋製袋興業株式會社	28,800
		福岡製袋株式會社	14,000
其他		아사노大工株式會社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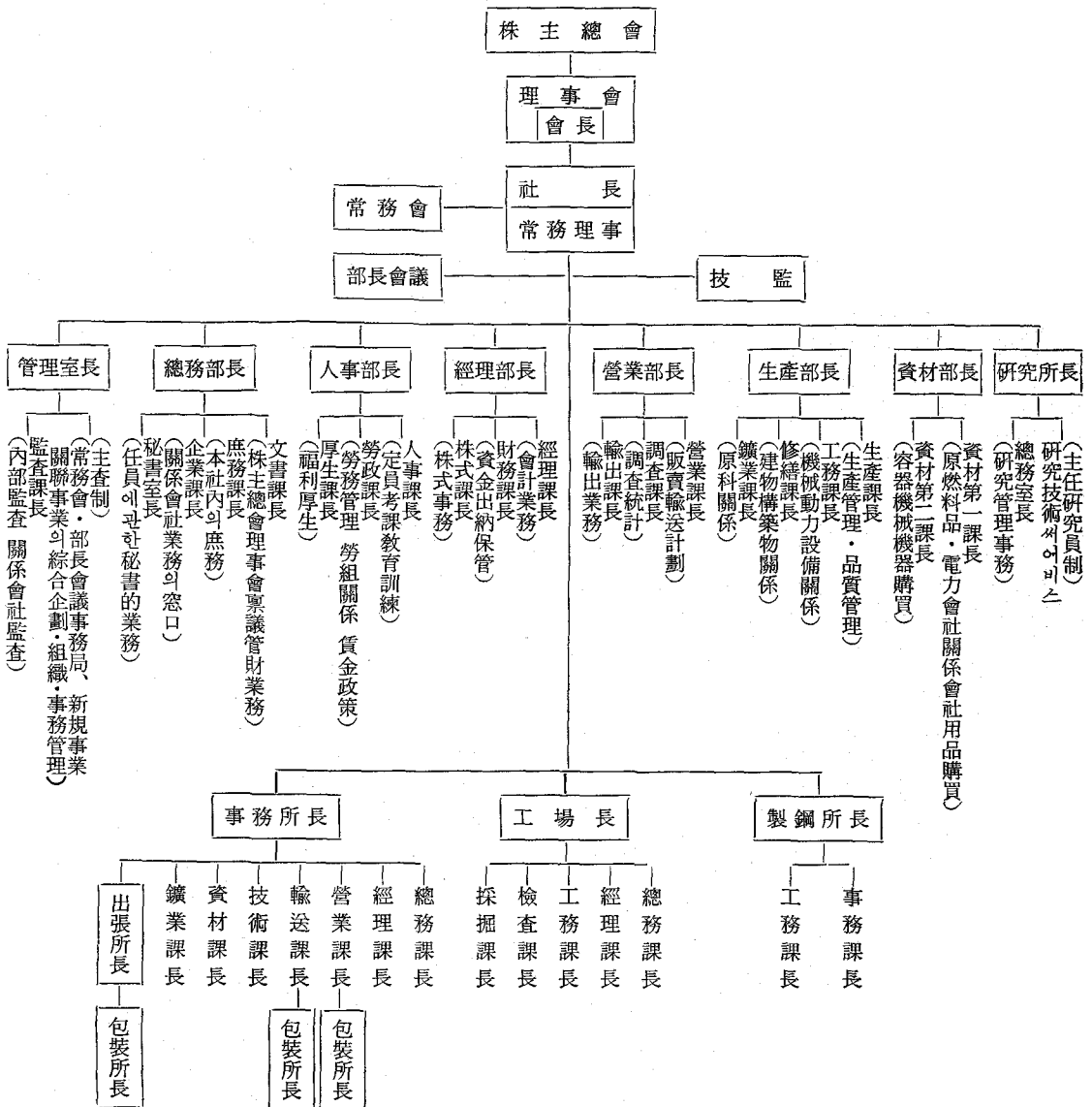
日本에서 1872年 처음으로 시멘트를 生産하기 始作하고 1882년에 淺野總一郎에게 拂下되어 오늘 日本시멘트株式會社は 1961年 9月 現在 시멘트의 製造販賣, 石炭石의 採取販賣, 鋼材의 製造

加工販賣, 前各號에 附帶하는 事業을 事業內容으로 하고 있는데 資本金은 50億圓(當時에 增資節次中으로 增資後에는 資本金이 100億圓의 豫定이였음) 使用總資產 374億圓, 賣出額 240億圓(1960年 5月 1日서 1961年 4月 30日) 從業員數 4,613名으로 多品種多量生産으로 完全한 市場生産下에 事業部에 의하지 않는 라인 및 스탭型을 取하면서 職能別組織을 應用 運營하고 있었던 이 會社는 자그마치 10個의 시멘트工場 1個의 製鋼所 그리고 16個의 包裁所를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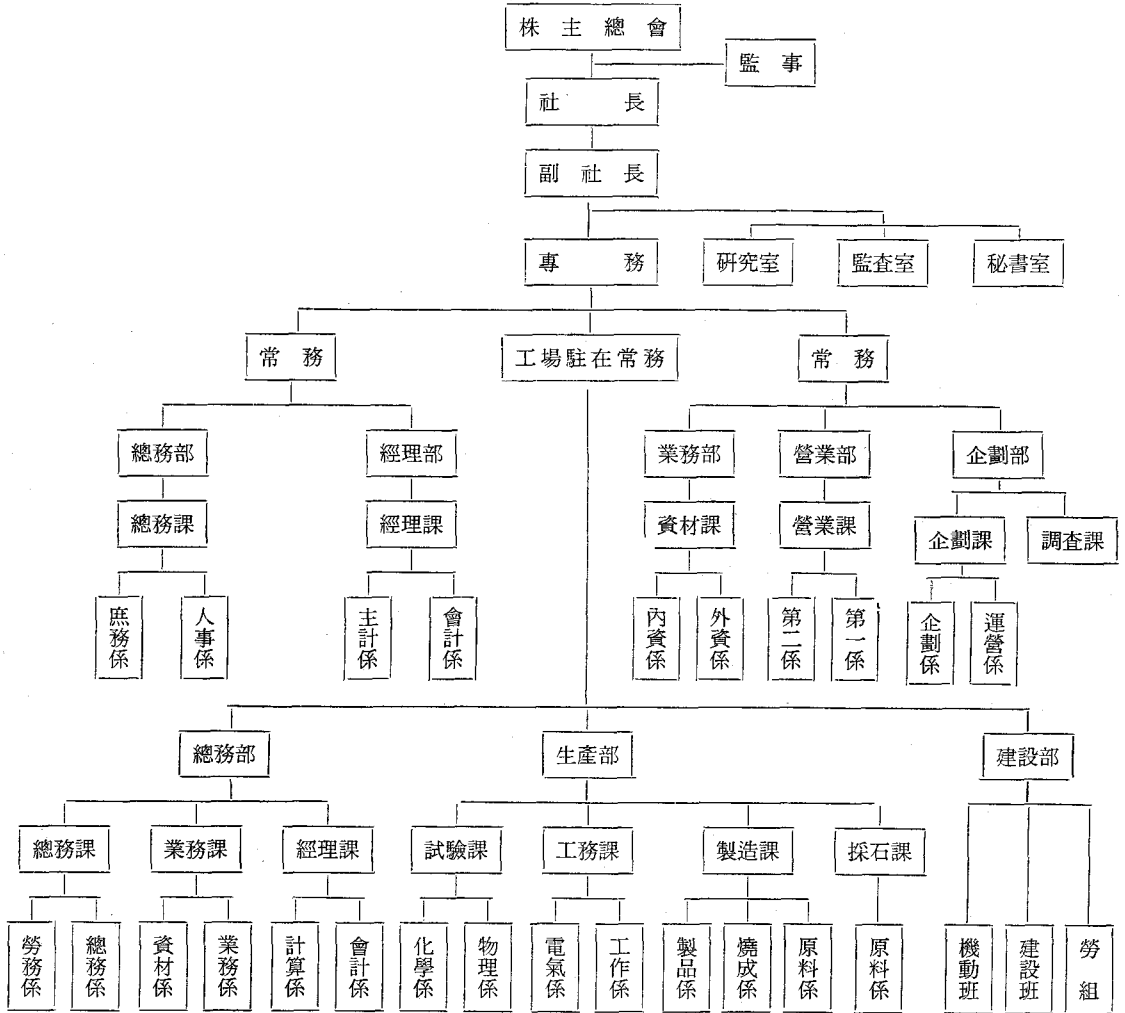
그리고 1961年 9月末現在 그의 關係會社는 無慮 52個社에 達하고 그 資本金總額은 52億幾千萬圓 當社의 拂入資本金額은 25億幾千萬圓에 達하고 있다.

그리고 그 當時의 그의 主要한 關係會社를 보면 上記表와 같다.

또 이들 工場 包裁所를 直接 管理하고 이들 關係會社들을 間接的으로 管理하는 이 會社의 組織圖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某會社組織圖(1967年現在)



위에서는 隣國日本の 代表的 시멘트會社의 規模를 보았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某시멘트會社의 組織을 對比함으로써 規模問題를 다루어 보기로 하자. 물론 여기에 揭示된 어떤 特定會社와의 具體的 對備는 아니며 비유하고자 그저 하나 例示한데 不過함을 附言한다. 1966年度에 約 3,800萬屯의 시멘트를 生産하여 世界 第三位를 차지하고 있는 日本의 시멘트會社의 規模와 겨우 200餘萬屯을 生産하는 우리나라 시멘트會社는 같은 規模일수가 없다. 그런데 會社의 規模面으로 보아 日本의 會社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一會社가 여러개의 시멘트工場을 가지면서도 會社의 組織을 본다면 오히려 우리 會社側이 部

課의 數가 더 많거나 또 組織階層이 많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生産量은 적은데 組織은 크다고 할진데 거기에서 오는 低生産性 原價高는 國際競爭力을 弱化시키는 結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次元 높은 어떤 措置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도 雙龍의 東海工場과 같은 大單位가 생기고 있어서 위의 弱點을 「카바」하고 또 雙龍洋灰工業株式會社와 같이 雙龍工場 東海工場과 같이 반듯이 一會社 一工場主義가 止揚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規模의 問題는 漸次로 解決되어 가는 方向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世界의 大勢로 보거나 他業種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企業集團管理下의 企業合併과 같은 次元을 한層 더 높은 角度에서 考慮해 볼만한 問題가 아닌가 생각한다. 왜냐하면 既存業體가 自己資本의 蓄積으로 規模를 擴大한다는 것은 期間이 길어지고 規模도 적어지고 또 그것이 事實上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既存業體끼리의 企業合併과 같은 方法으로 規模를 適正化하고 高生産性 低原價로 國際競爭力을 높이는 方策도 하나의 方途인 것으로 생각된다.

#### 4. 其他의 諸問題

##### 1) 資金問題

韓國의 企業 그리고 시멘트企業은 그의 歷史가 짧아서 本源的 資本蓄積이 얕은데 다가 시멘트産業은 莫大한 施設때문에 많은 資金을 必要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멘트企業에 있어서 資金問題는 커다란 課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資金은 外資, 內資 그것도 銀行債 그리고 私債로 三大分 할 수 있다. 그런데 新聞의 報道에 의하면 某業體는 銀行管理下에 드러갔고 또 어느 業體는 代拂業體가 되었던 것으로 判斷한다면 資金事情이 業體에 따라서 差違는 있으나 그리 豊富하지 않은 感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들 資金中에서도 高利로서 短期的 性格을 띤 私債가 큰 問題中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와같은 資金問題의 解決이야 말로 시멘트工業만이 아닌 우리 經濟界의 企業課題인데 現在의 諸與件이 여러가지로 어려운

點이 있기는 하지만 理論的으로는 株式의 公開, 增資, 私債發行과 같은 길로써 打開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私債를 金融債로 轉換하는 努力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市場問題

最近의 國內事情 즉 1. 21 事態와 不動產投機抑制稅로 시멘트需要가 減少되는 反面에 또 高速道路 등이 약간의 이 問題를 배워 준 것으로 생각된다. 시멘트의 需要가 着實히 增加될 것이 豫想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市場開拓努力없이 市場問題를 너무나 樂觀하는 것은 禁物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시멘트企業은 一般的으로 生産志向의 企業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市場情勢에 對應하는 販賣志向의 企業으로의 轉換이 圓滑한 것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것이다. 아마 이러한 狀態는 當分間繼續되리라 豫想되는데 이와 아울러 輸出問題의 檢討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3) 輸送問題

昨年보다 輸送問題가 나아지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經濟의 基本的 弱點의 하나는 社會間接投下資本의 不均衡이라 할진데 輸送問題가 本質的으로 解決된 것이 아니고 今後에도 問題가 重要한 課題로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以外에도 價格問題 그리고 人材問題등 여러가지 問題가 있지만 本稿에서는 우선 느껴지는 問題點中에서 規模問題만을 中心으로 局外者가 外部에서 느낀대로 記述해 본 것이다. 後日 다른 問題에 대해서는 다시 좀 더 詳細히 言及해 보고자 하며 이 글을 맺는다.